

익산국토청 → 전남청·전북청 분리 추진

국토부, 관할 범위 너무 넓어 ... 이르면 2017년 가능

2조 예산 광주·전남 6, 전북 4 ... 전북권 강력 반발

광주와 전남지역의 국토 및 하천정비를 담당할 국토교통부 산하의 독자기관이 이르면 2017년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을 전남청과 전북청 2곳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대내외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조직 및 기능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조직진단을 위해 국내 5개 국토관리청

의 재배치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중간용역결과, 익산청은 전남청과 전북청으로, 영남권을 관할하는 부산청은 경남청과 경북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도출됐다. 2곳 모두 관할범위가 광활해 긴급 조치 등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옳다는 게 이유다. 현재 2조원에 달하는 익산청의 예산 집행비율이 광주·전남권 6, 전북권 4인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일 익산국토청에서 중간용역 결과설명회를 갖고, 익

산청의 직원 의견 수용절차를 가졌다. 국토부는 용역결과를 참고해 현재 익산청의 인력규모 및 조직은 유지한 채 전남청과 전북청으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익산청 직원들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익산청 직원들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청 관계자는 "전남청과 전북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되는 것은 맞다"고 밝힌 뒤 "국토부가 5개 국토청의 의견을 듣고, 예산 등 보완책을 만든 뒤 행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말에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최종 용역보고서를 내고, 정부

의 조직개편안에서 익산청 분리가 확정되면 전남청 설립은 2017년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의 익산청 분리 방안을 놓고, 전북 정치권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자치부가 익산청을 전남청과 전북청으로 분리·재배치하려 한다"며 이런 분리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호남권 전체 공공기관의 87%가 광주·전남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익산청마저 분리된다면 전북은 한 단계 더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9일 개최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익산청 분리 배치를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수출 유망 중기 37개사 선정

광주·전남 중기청

자금 등 우대 지원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7일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37개 중소기업을 발굴해 올해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출 유망업체로 지정된 곳은 ㈜청해진수산, 미가식품영농조합법인, ㈜이노센코리아, 애니체, ㈜에이지과학, 다인시스템, ㈜유디, ㈜인성기계, 엘피닉스, ㈜천일, 육반식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엠시비&B, 프로텍코리아, 세인푸드, 이앤비소프트, 매일식품, 라인호퍼, 21세기메디칼, 옵타카, ㈜루바니 등이다. 또 바이오 벤처기업인 애니젠을 비롯, ㈜유먼크로스,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지티월드, 광주금형, 거림제약, 씨엔텍, ㈜라도, 토요요, 청화메디

파워, ㈜이노벤트, ㈜디씨티, ㈜지오티, 지오토, 곡성멜론, ㈜드림테크, ㈜마스타에프에이도 유망기업 대열에 포함됐다.

중기청은 지난 4월 광주·전남 67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출 유망성과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력, 재무·혁신성 등에 대한 현장평가와 중소기업수출지원 광주·전남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7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중기청과 방위사업청, 중기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보증 우대 지원은 물론 무역금융 등 여신지원 때 금리와 수수료 우대, 수출보험료 할인,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등 모두 84개 항목에 걸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주택 전월세 전환율

4월 8.1%...전년동기 1%P ↓

지난 4월 광주지역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이 기간 전세 물건의 월세전환이 대폭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광주지역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8.1%로, 올해 1월 8.3%를 기록한 뒤 0.2%포인트가 떨어졌다. 전년 동기(9.0%)와 비교하면 0.9%포인트나 하락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하면 월세 물건의 많아져 월세가 내려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광주지역 아파트의 경우 4월 기준 서구 6.0%, 남구 6.3%, 북구 6.0%, 광산구 6.5%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0.5%포인트, 1.8%포인트, 0.7%포인트, 0.8%포인트씩 하락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남도 우수 전통식품 한자리에

7일 광주신세계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열리고 있는 남도명인 우수식품전의 전시·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광주·전남 전통식품명인이 떡, 전통주, 장(醬), 차(茶), 김치 등 남도 우수 전통식품을 소개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예타 상반기 완료”

광주상의, 호소문 정부·국회에 전달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5일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금형산업진흥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와 공동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호소문'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현재 한국계

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올 상반기안에 완료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여당과 야당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사업으로, 국가 제조업의 재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는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이자 최고의 노동 생산성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확인했다.

광주상의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상반기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로또복권 (제653회) | | 2등보너스 숫자 | |
|-----------------|----------------|-------------|-----------|
| 당첨번호 | | | |
| 5 6 26 27 38 39 | | | 1 |
| 등위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 1 | 6개 숫자일치 | 980,958,670 | 14 |
| 2 |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 40,873,278 | 56 |
| 3 | 5개 숫자일치 | 1,146,172 | 1,997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88,995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1,419,408 |

메르스 여파에 ... 유통·외식업 타격

백화점·프랜차이즈

손님 줄고 매출 감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파장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유통·외식업 등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에 가기를 꺼리면서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줄었고, 주말동안 외출을 자제하면서 외식 손님도 급격히 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지난 1~6일 매출은 전년 동기(같은 월~토요일) 대비 4% 하락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구매고객의 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6월4일이 지방선거일로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메르스 영향만으

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역시 메르스 파장이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고객의 발길이 줄면서 구매 고객이 전 주에 비해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역시 광주·전남 전 매장의 매출이 전년 대비 5% 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외식업계도 잇따른 단체예약 취소 등으로 메르스 사태를 체감하고 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으로 몰렸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도 손님이 줄면서 한산하기까지 했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57·여)씨는 “주말에는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았는데 이번 주말에는 이런 손님들의 발길이 뜸 끊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면세품 환불 안돼” 소비자 속인 온라인 면세점 적발

면세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 말하거나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홀리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 온 온라인 면세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이 드러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대한항공스카

이슈,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위케어 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적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작년 국내외 이슈 모두 담은 '연합연감 2015년판' 출간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15년판'이 출간됐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와 150여 명의 필진을 동원해 2014년 한 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별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 도표 등을 정리해 수록했습니다.

초점으로는 초대형 사고 '세월호 침몰 대참사'를 비롯해 '6·4 지방선거 여야 무승부', '국무총리 후보 연세 낙마', 연말 정국을 뒤흔든 '청와대 비선의혹 문건유출'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첫 정당해산 결정', 그리고 참사의 아픔 속에서도 국민에게 한 줄기 빛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등을 선정해 상세하게 조명했습니다.

본문에는 국내외 분야별 뉴스와 현황, 일지, 연표 등을 정리하는 한편 통계와 일람, 주요 연설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역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다양한 자료를 별도로 엮어 담았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3년의 평가와 앞으로 펼쳐질 김정은 시대의 전망을 집중적으로 실었으며, 김정은 체제 당·정·군 기관의 조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권력기구도와 주요 기관·단체장 명단을 게재했습니다.

행정구역울 지도와 함께 나열한 북한 시·도 지리와 북한 10대뉴스, 일지, 연표는 물론 연합뉴스가 보유한 북한 주요 인물의 주요 학력과 경력 등을 소개해 참고자료로서 가치를 높였습니다.

분야별 뉴스와 함께 관련 사진, 그래픽, 도표 등을 다채롭게 곁들여 독자들의 지루함을 덜고 빠른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 4×6배판 양장본, 총 1천332쪽
- 가격 : 18만원

구입 문의 서울(02)398-3590 ~ 3 경기(031)238-2222 인천(032)427-1236 대전 충남(042)521-9705 광주(062)264-5777 청주(043)225-6005 강원(031)569-7788 전주(063)232-7652 경남(055)281-0010 부산 울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